

##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설교에 나타난 루터 성서해석의 특징 연구

이윤경\*

### 들어가는 말

루터는 1517년 95개 논제를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다. 어떻게 루터는 종교개혁의 개척자가 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의 대답으로 루터가 1517년 이전에 이미 성서강해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학자들은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사상적 근거를 그의 새로운 성서해석에서 찾고자 한다.<sup>1)</sup> 루터는 1507년 회심 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고, 1512년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에서 성서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루터는 졸업 직후인 1513년부터 시편강해(Dictata super Psalterium)를 시작하면서 일련의 설교 형태의 성서 강해를 통해 자신의 해석학과 신학을 세워나갔다. 루터는 제1차 시편강해(1513-1515년)를 필두로 로마서(1515-1516년), 갈라디아서(1516-1517년), 히브리서(1517-1518년)를 강의하였다. 루터는 계속해서 제2차 시편강해(1518-1521년), 신명기(1523-1524년), 소예언서(1524-1525년), 전도서(1526), 요한일서, 디도, 빌레몬(1527년), 디모테전서(1528년), 이사야

---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기독교학과

1) Karl Bauer, *Die Wittenberger Universitäts-theologie und die Anfänge der Deutschen Reformations* (Tübingen: Verlag von J. C. B. Mohr), 1928. 지원용 편,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6), 107에서 재인용.

(1528-1530년), 아가(1530-1531년), 제3차 시편강해(1532-1535), 창세기(1535-1545년) 등을 강해하였고, 갈라디아서는 1531년에 다시 강의하였다. 루터에게 강의와 설교는 분리되거나 구분되지 않았다.

이처럼 루터는 성서에 대한 탁월한 지식으로 인해 ‘오직 성서로만’(Sola Scriptura)이라는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 수 있었다. 루터 이전의 설교는 “성인들의 영웅담과 교부들의 묵상집 등을 주로 읽고 또 설교자들은 도덕적인 설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설교에서 성서의 말씀을 직접 들어볼 수 없었다.”<sup>2)</sup> 더구나 당시의 설교자는 어떤 특정 주제를 정하고, 성서본문을 통하여 그 주제를 설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루터 이전의 성서해석의 특징이 바로 성서의 사중적 의미’를 찾는 ‘사중해석’(the fourfold sense of Scripture, the *Quadrigo*)이다. 즉, ① 본문이 과거 사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밝히는 문자적-자의적(literal) 의미, ②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바를 밝히고자 하는 우의적-영적(allegorical) 의미, ③ 본문이 삶의 태도에 대해 가르치는 바를 찾는 교도적-도덕적(moral) 의미, ④ 본문이 궁극적 운명에 대해 말하는 바를 밝히고자 하는 유비적-종말론적(analogical) 의미이다.<sup>3)</sup> 분명 루터는 초기 설교인 시편강해(Dictata super psalterium, 1513-1514년)에서는 여전히 스콜라신학의 사중해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루터는 리라의 니콜라스(Nicholas of Lyra)와 파베르 스타플렌시스(Faber Stapulensis)가 주창한 ‘이중 문자적 의미’(double literal sense)에 영향을 받게 된다.<sup>4)</sup> ‘이중 문자적 의미’는 구약 텍스트의 원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기독교적 의미를 수용하는 것이다.<sup>5)</sup> 루터는 점차 종래의 설교 방식을

---

2)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설교신학 이해—그의 초기 설교들(1513-1522)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17집 (2009), 39.

3) 하인리히 보른캄 지음, 엄현섭 옮김, 『루터와 구약성경』 (서울: 컨콜디아사, 2006), 144.

4) Inseo Song, “Martin Luther’s Hermeneutics of the Old Testament,” 『Canon&Culture』 11 (2017), 10에서 재인용.

5) Robert Kolb, Irene Dingel, Lubomír Batka, eds. *The Oxford Handbook of Martin Luther’s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76.

탈피하게 된다.<sup>6)</sup> 그는 성서본문의 우의적 의미보다 문자적 의미를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아, 한 구절씩 설명해나가는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서 강해를 통하여 자신만의 주석 방법을 찾게 되었고, 로마교회의 전통적인 시중해석 방법을 벗어나서, ‘성서는 오직 성서로 해석되어야한다’(Sui ipsius interpres)고 주장하기에 이르르게 되었다. 루터의 성서주석 방식은 본문의 텍스트를 한 구절씩 읽은 후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종의 용어해설(Glossen)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이렇게 드러난 의미를 바탕으로 성서 본문을 주해(Scholien)하였다. 이 점에서 루터의 ‘오직 성서만으로,’ 혹은 ‘성서는 성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성서해석의 대원칙은 초기단계의 문법적, 역사적, 문자적 해석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루터의 대원칙과 실제 주석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기에, 루터의 해석은 여전히 역사비평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괴리감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루터 성서해석의 특징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십자가 신학’에 있기 때문이다.<sup>7)</sup> 루터의 주석은 문법적, 역사적, 문자적 원칙에 기반하여 정확한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부분 알레고리적이고 교리적인 해석이 눈에 띄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루터의 이러한 성서해석의 특징을 먼저 루터의 구약성서와 유대교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구체적 실례로서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를 분석함으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6) 루터가 전통적인 성서해석 방식에서 확실하게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To the Goat in Leipzig」(1521)에서 드러난다. Song, “Martin Luther’s Hermeneutics,” 11.

7) Mark D. Thompson,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Works of Martin Luther,” *A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Vol. 2: The Medieval through the Reformation Periods*, Alan J. Hauser and Duane F. Watson, ed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299-318.

## 1. 루터, 구약성서, 유대인

루터의 성서에 대한 열정은 그의 성서번역을 통해 입증된다. 루터는 1521년 보름스 의회(Diet of Worms)가 열린 후, 관할 영주 프리드리히 현제(Frederick the Wise)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Wartburg) 성으로 피신하였다. 그곳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11주 만에 번역하였고, 이 『독일어 신약성경』(Das Neue Testament Deutsch)을 1522년 9월에 출판하였다. 이후 루터는 구약 성경 번역을 위해, ‘산헤드린’이라는 번역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번역위원회에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thon), 유스투스 요나스(Justus Jonas), 요하네스 부겐하겐(John Bugenhagen), 카스파르 크루시거(Caspar Cruciger) 같은 학자들이 합류하였다. 루터역이 완역되어 나온 것은 1534년이였다. 그러나 1534년부터 1546년 사이에 열한 번이나 개정을 거듭했고, 마지막 판은 그의 사후에 나오게 되었다.<sup>8)</sup> 루터역의 특징은 히브리어 원문을 최대한 독일어답게 표현하고자, 학문적이거나 문어체가 아닌 독일 말을 생생하게 살려서 번역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루터 성경 번역의 공헌점은 루터 이전의 성경에는 배열 표준이 없어서, 번역자들이 임의로 순서를 정하였던 것을, 신약성경의 배열 순서를 정했다는 점이다.<sup>9)</sup>

루터는 성서번역을 완수하기 이전인 1520년에 종교개혁 3대 저서로 알려진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들에게 고함」과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동년 8월, 10월, 11월에 차례로 완성한다. 그런데 루터의 사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고 때로는 그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여 당황스러운 정도이다. 대표적으로 루터의 자기 모순적 사상은 농민전쟁을 둘러싼 그의 주장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루터는 1523년 「세속권세: 어디까지 복종해야 하나?」 저작에서는 위정자들에게 전체적

8)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 [http://www.bskorea.or.kr/about/bibcome/bibcome04\\_03.aspx](http://www.bskorea.or.kr/about/bibcome/bibcome04_03.aspx)

9) 루터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르치셨나?’를 기준으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순으로 성경을 배열했다.

통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1525년 루터는 그의 저서 「약탈과 살인을 일삼는 농민 무리들에 대항하여서」에서 단순히 독일 농민 반란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 반란군들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더불어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할 것을 주장하였다.<sup>10)</sup>

루터의 자기모순이 드러나는 또 다른 주제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다. 루터는 1523년 논문인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사실」에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나는 유대인들을 힘으로 몰아가고, 중상하고, 그들에게 혐의가 없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유로 그들을 비난하며, 그 외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로 그들을 괴롭히는 대신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말씀에 따라 계도할 것을 바라며 조연한다. 그러면 그들 중 일부가 따라 올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개처럼 대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 사이에서 무슨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만약 정말로 그들을 돕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황의 법에 따라 그들을 대하지 않고 기독교인의 사랑에 따라 그들을 대해야 한다... 만약 그들 중 일부가 목이 곧은 사람임을 보여주려 한다면이라도 그게 무슨 대수인가? 어쨌든 우리들 자신도 모두가 훌륭한 기독교인은 아니지 않은가?<sup>11)</sup>

이처럼 루터는 유대인을 선의로 대하라고 권고한다. 그런데 루터의 이런 태도는 20년이 지난 1543년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에서 완전히 달라진다. 이 저작에서 루터는 첫 번째로 유대교 회당과 학교를 불 지르고, 유대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할 것,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것, 세 번째로 유대교 종교문서를 빼앗을 것, 네 번째로 랍비의 설교를 금지할 것, 다섯 번째로 유대인의 안전한 통행과 이동을 보장하지 말 것, 다섯 번째로 고리대금업을 금지하고, 금과 은을 몰수하여 안전한 곳에 두고, 완전히 개종한 유대인에게는 돌려줄 것,

10) 루터의 입장에서 뮌치 주도의 열광주의자들은 영적 정부를 세속 정부와 혼합하겠다는 점에서 가톨릭과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25-133.

11) Luther's Works, V. 45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229.

마지막으로 젊고 건강한 유대인에게는 도리깨, 도끼, 삽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빵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명한다.<sup>12)</sup>

그렇다면 루터는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서를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루터는 교수로서 32년 동안 거의 모든 기간을 구약성서를 가르치는데 헌신하였다.<sup>13)</sup> 구약성서의 경전적 가치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반유대주의는 우생학적인 인종우월주의에 근거하기보다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루터는 구약성서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신약성서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구약성서는 율법책으로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르친다. 또한 구약성서는 순수한 율법 이외에 그 율법이 지켜지고 깨어진 사례와 이야기들을 추가하여 보여준다. 반면에 신약성서는 복음, 곧 은혜의 책으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친다. 신약성서는 은혜에 대한 가르침과 더불어 육신을 다스릴 많은 율법과 계명을 가르친다... 신약성서의 주된 가르침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통한 은혜와 평화의 선언이라면, 구약성서의 주된 가르침은 계명을 가르치고 죄의 본질을 보여줌으로써 선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다.<sup>14)</sup>

루터가 구약성서의 정경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신약성서와 함께 읽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 루터는 구약성서를 읽을수록 그리스도를 받아드려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루터 식으로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의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구약을 읽는 순간부터 반유대주의는 발생된다.”<sup>15)</sup> 루터는 신약의 빛 아래에서 구약성서 읽기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이 관점에서 루터는 ‘구약성서에 붙이는 루터의 서문’에서 오경을 ‘복음적’ 책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

12) Luther's Works, V. 47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1), 268-272.

13) 보른캄, 『루터와 구약성경』, 30.

14) 마틴 루터, 지원용 옮김, 『루터선집1』 (서울: 컨콜디아사, 1981), 28.

15) 이성림, “루터와 반유대주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신학과세계』 83 (2015), 70-99.

한다. 예컨대, 창세기 강해에서 아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여인의 씨’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생각을 전개한다. 또 출애굽기 강해에서 모세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함으로써, 다른 백성과 구별한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율법과 통치자들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그들을 다스린다고 말한다. 레위기 강해에서는 레위기의 특별한 주제는 제사장직의 임명에 있다고 보고, 제사장의 직책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한편 민수기 강해에서 루터는 더욱 세분화 되고 추가되는 율법 사항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에 주목하면서,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려는 일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루터는 신명기 강해에서 두 왕국(현세의 나라와 영적 나라)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다고 본다. 이제 루터의 기독교적 구약성서 읽기 해석방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루터의 창세기 3:1-24 <죄의 희망> 강해

루터는 말년에 들어서면서 구약성서 연구에 몰두하고, 특히 1535년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한다. 루터의 「창세기 강해」는 1535년 6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창세기 강의 시리즈를 시작하여 거의 10년이 지난 1545년 11월에 마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강해는 루터 자신의 직접 기록이 아니라, 후대 편집자들과 연구자들이 수집한 것을 편집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루터선집 「창세기 강해」의 소개의 글에서 언급하듯이, 창세기 강해는 루터 자신의 견해의 본래적 모습보다 후대의 견해가 반영된 글이라는 평가도 있다.<sup>16)</sup>

16) 루터의 창세기 강해에는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있다는 의견이 있다. 『루터선집1』, 47.

우리말로 번역된 『루터선집1』에 실린 「창세기 강해」는 3:1-24 <죄의 희망>, 11:1-9 <인류의 거만성>, 12:1-4 <축복의 선언>, 28:10-17 <하늘의 문>, 32:21-31 <시험에 관하여>, 45:4-8 <용서에 관하여>, 50:15-26 <은혜의 악용금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루터의 창세기 강해는 현대적 관점으로 보기에는 ‘주석’이라기보다는 ‘강연’에 더 어울린다. 이 강해에서 루터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루터는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영성 형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둘째, 성서의 족장사를 살펴봄으로써, 루터는 기독교인의 거룩성과 삶에 대한 새로운 복음적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창세기를 통해 교회의 과거를 재건함으로써, 루터는 가톨릭과 대조되는 복음적 교회라는 새로운 관점을 주입하고자 하였다.<sup>17)</sup> 루터의 우리말 『루터선집1』의 「창세기 강해」 중 가장 긴 단락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타락 장’으로 불리는 창세기 3장 1-24절의 본문이다.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에 나타나는 신학적 주제를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2.1. ‘몸’에 대한 긍정적 이해

루터는 타락 전후로 ‘몸’에 대한 이해가 변화된 것에 주목하였다. 타락 이전 인간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sup>18)</sup> 오히려 “알몸으로 살아가는 특권”<sup>19)</sup>을 누렸고, 남녀의 결혼은 거룩한 것이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육신의 자랑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몸은 욕정을 따르게 되었다고 본다.<sup>20)</sup> 루터는 특히 **קָרַח**(치마)라는 단어에 관심을 두고, ‘웃을 입을다’는 의미는 몸을 수치로 여겨 몸을 가리게 되는 행위라고 주석한다.

---

17) Inseo Song, “Abraham as an Example of Christian Identity,” 「장신논단」 47 (2015), 83-106.

18) 『루터선집1』, 50.

19) 『루터선집1』, 49.

20) 『루터선집1』, 50.

여기에 **הַרְחִיקָהּ**란 말은 엄밀히 말해서 옷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우리는 대외부를 모두 가린 무화과 나뭇잎이 죄 짓기 전에는 가장 명예로웠던 부분을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되는 가장 수치스럽고 비천한 부분인 것처럼 가려 버린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아, 죄에 떨어진다든 것은 참으로 무섭구나! 사람의 눈은 가장 명예로웠던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도록 밝아졌다.<sup>21)</sup>

그래서 루터는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린 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이 알몸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본다.<sup>22)</sup> 특히 루터는 당대에 창궐하기 시작한 매독이나 발한병 같은 질병의 발생의 기원을 창세기 3장의 몸에 대한 이해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sup>23)</sup>

창세기 3장 주석에서 드러난 루터의 몸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결혼 제도에 대한 긍정적 관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몸 자체를 긍정적인 것으로 보며, 타락 이후, 인간은 몸과 죄를 동일시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루터는 ‘독신’을 사탄의 지혜라고 본다.

더욱이 사탄은 그때처럼 지금도 행동한다.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된다고 말하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리스도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 지혜를 수도사들은 무시한 채 다른 지혜로 돌아선다. 두건을 쓰고 도포를 걸치고 독신생활을 서약한다.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구원받으리라고 상상한다.<sup>24)</sup>

루터는 창세기 3장의 해석을 통해 ‘사탄의 지혜’인 ‘죄 된 몸’이라는 사상이 결혼에 대한 부정적 관점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성직자에게 독신이

21) 『루터선집1』, 75.

22) 『루터선집1』, 81.

23) 『루터선집1』, 112.

24) 『루터선집1』, 69.

강요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타락 이전의 몸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 결혼이 독신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고 본다.<sup>25)</sup>

## 2.2. 뱀의 존재와 시험의 본질

루터는 ‘왜 하필이면 뱀을 통해서 시험하는가?’라는 흥미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다른 동물들보다 영리하다’는 성서의 설명은 모호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이 설명이 모호한 것은 한낮의 태양처럼 온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성서의 모든 신비를 열어 놓으실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기 위해서다.”<sup>26)</sup>라고 주석함으로써,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역으로 남긴다.

그런데 루터의 뱀의 존재와 등장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뱀을 단순히 영리한 동물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루터는 “타락한 천사가 뱀 속에 들어가 뱀을 통하여 말하고 하와를 속이는 것”<sup>27)</sup>이라고 본다. 물론 그는 창세기 본문이 뱀을 사탄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존재를 사탄과 동일시한다. 루터는 “죄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진 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장 잔인한 적”<sup>28)</sup>이 되었고, “뱀 속에는 그리스도가 복음서에서 그는 진리에 서지 않았으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선언하시는(요 8:44) 순진무구한 본성의 적, 악령이 있다.”<sup>29)</sup>라고 단언한다. 이런 루터의 해석은 구약성서 안에서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제시되는지

---

25) Scott Hendrix, “Luther on Marriage,” *Lutheran Quarterly* 14 (2000), 335-350.

루터의 결혼관에 대한 직접 서술은 다음을 참조하라. Martin Luther, “The Estate of Marriage,” (1522). 영어번역본은 <https://1215.org/lawnotes/misc/marriage/martin-luther-estate-of-marriage.pdf>.

26) 『루터선집1』, 53.

27) 『루터선집1』, 53.

28) 『루터선집1』, 64.

29) 『루터선집1』, 57.

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는 것을 간과하고, 바로 뱀과 사탄을 동일시하는 가톨릭교회의 교리 전통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루터는 매우 중요한 질문에 돌입한다. 그것은 바로 뱀이 첫 인간에게 행한 ‘시험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받은 시험을 우상숭배나, 교만이나, 단순히 금지된 과일을 먹는 실수가 아니라고 본다.<sup>30)</sup> 루터는 뱀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공격하고 금단의 나무를 빙자하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지 않다고 증명”<sup>31)</sup>하려고 한다고 본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시험을 한다. 뱀의 역할은 “말씀으로부터 사람을 이간시키거나 말씀을 변질시키는”<sup>32)</sup>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보다 더욱 더 나쁜 것이라고 본다.<sup>33)</sup>

특별히 이러한 루터의 ‘뱀’의 역할 해석이 흥미로운 점은 아리안주의자, 재세례파, 바질(Basil) 시대의 이단들, 프란체스코와 도미니크 수도승, 교황주의자들, 성찬형식론자 등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드는 당대의 뱀이라고 해석하는 점이다.<sup>34)</sup> 루터가 보기에 이들은 뱀처럼 교활하게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경건한 교리를 가르치는 척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전파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하도록 한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죄의 근본은 참으로 불신과 의심과 말씀의 포기”<sup>35)</sup>라고 정의 내린다. 루터는 이들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상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비판한다.

### 2.3. 열등한 존재, 여성

루터는 하와를 “여자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창조된”<sup>36)</sup> 존재라고 보았다.

30) 『루터선집1』, 53.

31) 『루터선집1』, 53.

32) 『루터선집1』, 54.

33) 『루터선집1』, 55.

34) 『루터선집1』, 53-56.

35) 『루터선집1』, 56.

그러나 그는 뱀이 하와를 먼저 시험한 것은 남성인 아담에 비해, 여성이 본성상 약하고 열등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루터는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탄의 영리함은 그가 인간 본성의 약한 쪽인 여자 하와를 공격하고 남자 아담을 공격하지 않는 이 점에서도 파악된다. 양자가 똑같이 의롭게 창조되었으나 역시 아담은 하와보다 어떤 우월성을 가졌다. 그밖에 자연의 모든 존재들 중에서 남성의 힘이 여성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처럼 완전한 본성에 있어서도 남성이 여성을 다소간 앞섰던 것이다. 사탄은 아담이 더욱 우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그를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자기 시도가 쓸모없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나 또한 그가 아담을 먼저 꾀었다더라면 승리는 아담의 것이었으리라고 믿는다. 아담은 한쪽 발로 뱀을 짓이겨 버린 다음, “다채, 주님의 계명을 달랐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약한 쪽인 하와를 공격하여 그녀의 용기를 시험한다. 그는 그녀가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sup>37)</sup>

루터는 여성도 남성처럼 의롭게 창조된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여성은 본성에 있어서 남성보다 열등하며, 심지어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라고 본다. 루터는 유럽에서 결혼한 여성이 남성의 성을 따라가는 관습의 기원을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준 것에서 기원한다고 본다.<sup>38)</sup> 루터는 타락으로 인하여 여성은 분만 시의 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본다.<sup>39)</sup> 나아가 루터는 “바깥세상 및 국가와 관계되는 사건들을 처리할 능력을 더럽혔기 때문에 집안에 머물면서 가사를 돌보아야 한다. 여자는 자신의 가장 사적인 의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sup>40)</sup>고 선언함으로써,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상의 원인을 타락의 결과로 규정하고, 심지어 정당화하기에 이른다. 창세기 3장 주해에서 드러나는 루터의 여성상은 이후 개신교 교회에서 여성들이 열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6) 『루터선집1』, 69.

37) 『루터선집1』, 58-59.

38) 『루터선집1』, 123.

39) 『루터선집1』, 107.

40) 『루터선집1』, 108.

#### 2.4. ‘말씀’으로 기능하는 금지된 열매

창세기 2장 16-17절에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기 전,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직접적으로 명령한다. 그래서 하와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자,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바’를 전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2-3절). 루터는 아담이 금지 열매 명령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3:9)라고 물었다고 본다.<sup>41)</sup>

그런데 루터는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된 죄를 ‘말씀과 믿음’이라는 틀을 통해 설명한다.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각적으로 죽지 않았던 이유를, 루터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찾는다. 그는 심지어 교황이 악한 교리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 역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서 찾는다.<sup>42)</sup>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상숭배와 죄를 짓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한다. 루터는 ‘말씀과 믿음’이라는 틀을 기독교인들에게도 적용한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말씀을 거슬러 지은 죄도 그처럼 중요하다. 이 죄에게 우리의 전존재가 유린당하였다. 그 세력이 무진장한데 어떻게 이 죄를 정복하겠는가? 이 죄를 정복하려면 우리는 다함이 없는 의, 곧 당신의 아들과

41) 『루터선집1』, 79.

42) 『루터선집1』, 67.

함께 오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sup>43)</sup>

이처럼 루터는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빛에서 해석하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믿음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루터는 이 ‘말씀과 믿음’의 틀이 깨어진 결과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벗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올법이 와서 두 눈이 열리면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과 죄인을 벌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을 깨닫게 된다”<sup>44)</sup>고 주해한다. 루터는 올법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하여 아담은 작은 바람소리에도 놀라게 된다고 본다. 루터는 이 사실을 흥미롭게도 히브리어에 주목하면서 이끌어낸다. 창세기 3장 8절에 우리말로 “바람이 불 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וּרְבִיחַ הַיָּם**에 주목한다. 이 히브리어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낮의 바람’이다. 루터는 이 문구의 원 뜻의 강조점은 ‘낮’에 있다고 본다.<sup>45)</sup> 즉, 아담은 대낮임에도 너무나 놀라 작은 나뭇잎 소리에 놀랐다. 루터는 문자적 해석에 주목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루터는 올법이라고 해석한다. 루터는 이 물음을 “내가 너를 보지 않는 줄 생각하느냐”라는 말씀과 같다고 본다.<sup>46)</sup>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을 자각하고, 각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아담은 “주님,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고백하기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3:10)라고 말한다. 루터는 부끄러워해야 할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알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아담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루터는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인 육체, 그리고 나아가 벗은 몸은 부끄러움의 대상도, 죄의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43) 『루터선집1』, 69.

44) 『루터선집1』, 71.

45) 『루터선집1』, 77.

46) 『루터선집1』, 80.

## 2.5. 타락의 결과

루터는 타락 이후 뱀은 “가장 아름다운 작은 동물”에서 아름다움을 상실하고, 영리함도 상실하고, 자유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본다.<sup>47)</sup> 무엇보다도 타락의 결과로서 뱀이 받게 된 벌에 대한 해석을 루터는 마리아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름을 바꾸어 버렸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루터 이전에 가톨릭교회는 뱀이 받게 된 죄의 결과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3:15)를 성모 마리아에게 적용하였다. 루터는 가톨릭교회가 동정녀를 통하여, 그녀의 아들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가 깨어질 것이라고 해석해 온 것을 태만과 무지의 결과로 치부한다. 나아가, 루터는 가톨릭교회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음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렸다고 보는 것을 또 다른 우상숭배로 보았다. 오히려 루터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출생과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이를 믿지 않는 유대인은 “가망 없는 그루터기, 이새의 줄기”<sup>48)</sup>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루터는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을 죽음과 죄의 소멸로 해석한다.<sup>49)</sup> 이처럼 루터는 창세기 3장을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틀에서 해석한다. “악마의 머리를 부술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같이 현세에서 육신이 죽은 후에 육신과 영생의 부활을 바란다.”<sup>50)</sup> 여기에 더 이상 마리아가 서있을 자리는 없다.

루터는 타락의 결과로 아담이 받게 된 벌은 단순히 육체의 노동이라는 고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연쇄적으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에 주목한다. 그는 3:17의 **קָטַף וְעָבַד**를 라틴어로 ‘in opere tuo’(너의

47) 『루터선집1』, 59.

48) 『루터선집1』, 100.

49) 『루터선집1』, 102.

50) 『루터선집1』, 103.

일로) 번역한 것은 오역임을 지적하고, ‘너 때문에’로 바르게 번역할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 성서를 포함한 현대어 번역은 루터의 수정을 따라 ‘너로 말미암아’(개역개정), ‘because of you’(RSV)로 번역한다. 루터는 생태계의 교란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았다고 보았으며, 이런 땅의 수난은 홍수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 되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루터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땅의 수난은 단순한 땅의 황폐화에서 더 나아가, 온 땅에 “폭력과 불의와 억압”이 가득 차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통찰력을 보여준다.<sup>51)</sup>

또한 루터는 죄의 결과를 단순한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깊이 있게 성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당시에 ‘노동’은 매우 양가적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아주 고될 정도의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의미를 찾았고, 또 어떤 이들은 게으름으로 보일 정도의 안락한 삶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노동의 차등’을 제시한다.<sup>52)</sup> 즉, 가정, 국가, 교회와 관계된 노동은 위대한 노동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컨대, “교황, 추기경 및 모든 악한 사람들”은 교회를 위한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면 서도 부를 누리고 안락한 삶을 하기에,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을 하지 않는 자라고 본다. 본질적으로, 루터는 ‘노동’ 자체는 죄의 결과이며, 따라서 영원에 빚대어 사는 인생이 인내심을 발휘해서 감내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sup>53)</sup> 루터의 ‘노동’ 개념은 그의 이후 저작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루터의 ‘노동’에 대한 맹아적 사고는 개신교회에서 ‘노동’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하는데 분명 기여하였을 것이다.

---

51) 『루터선집1』, 111.

52) 『루터선집1』, 117.

53) 『루터선집1』, 118.

### 3.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는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역사비평에 근거한 주석이 아니지만, 본문에 대한 루터 이전의 시중해석을 벗어나서, 적어도 문자적이면서도 역사적인 해석의 단초를 보여준다. 특히 루터의 역사적 비평은 현대의 역사비평의 접근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당대의 역사적 실재를 본문을 통하여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노정한다. 즉, 루터는 본문에 찬착할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하여 가톨릭교회나 당대의 교리를 비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본 단락에서는 루터의 성서본문 주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면서, 창세기 3장 주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세 개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3.1. 문법적, 역사적, 문자적 해석 추구

루터의 말년의 성서강해인 창세기 강해 중 3장 강해는 현대 성서주석이 제시하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학적 관심의 발아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문자에 대한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루터의 문자적, 문법적 해석에 대한 주장은 고전어, 역사학 등을 연구한 당대의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루터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의 역사적인 의미, 참되고 진실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서마다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성서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된 임무는 성서에서 확실하고 뚜렷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틴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 주석가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심을 저버리며 터무니없는 은유로 말씀을 혼란에 빠뜨린다.<sup>54)</sup>

---

54) 『루터선집1』, 135.

루터는 창세기 3장 해석에서 오리겐과 제롬이 역사적 기록을 ‘죽이는 문자’와 ‘육신’으로 치부하고, 우의적 의미에 몰두하는 것을 비판한다.<sup>55)</sup> 또한 루터는 “어거스틴도 이 생각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 그리고 특히 시편의 경우, 그는 역사적 의미를 무시하고 우의에 의지하였다. 그들은 특히 구약성서의 역사적 기록에 있어서, 우의가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역사적인 기록 또는 문자적인 의미는 현세적인 뜻을 나타낸다고 믿었다”<sup>56)</sup>고 말함으로써, 어거스틴 역시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루터는 죄의 결과로 초래된 또 다른 비극은 바로 실낙원이라고 본다. 그런데 실낙원에 대하여, 오리겐과 그의 제자들은 에덴동산을 천국으로, 그 동산의 나무들을 사람으로 해석한다. 루터는 이러한 우의적 해석을 “공허하고 쓸모없는 생각”<sup>57)</sup>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루터는 오리겐, 제롬, 리라, 어거스틴이 ‘영적 의미’에 집착함으로써, ‘역사적 기록 또는 문자적 의미’를 무시하였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루터는 스스로 역사적 의미에 눈을 돌리게 된 다음에는 우의(allegory)를 회피하고, “본문의 말씀이 우의를 나타내거나 신약성서에서 해석을 내려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우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sup>5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이 비판하던 이전 시대의 우의적 해석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고, 스스로 우의적 해석을 단절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고백하였다.<sup>59)</sup> 루터의 창세기 3장 성서강해 역시 현대적 의미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결코 우의적 해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적 해석의 근간이 된 무차별적 우의적 방법 사용을 거부하고, 문자적 해석 방법을 시도한다. 이러한 루터의 새로운 성서해석 방법론은 성서해석을 교회의 권위로부터

55) 『루터선집1』, 135.

56) 『루터선집1』, 135.

57) 『루터선집1』, 136.

58) 『루터선집1』, 136.

59) 『루터선집1』, 136.

성서자체의 권위로 되돌려 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루터는 어거스틴의 교권주의적 성서해석을 거부하고, '성서는 자기 자신의 비판가'(Scriptura sacra sui ipsius critica)라는 원칙을 제시한다. 이런 해석원리는 창세기 3장 강해 곳곳에서 나타난다.

### 3.2. 그리스도 중심적 성서강해

루터는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다고 보며, 구약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품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루터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라고 해석한다.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적 성서해석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틀로 제시하는 것과 연동된다. 루터는 「기독교인들은 모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1525)에서 우선 율법과 복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첫 선포, 즉 첫 교훈은 하나님의 율법이다. 두 번째 선포된 것은 복음이다. 이 두 선포는 서로 다르다... 우리는 율법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율법은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요구한다. 따라서 율법은 전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규칙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 일을 가르치지 않는다.<sup>60)</sup>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보른캄이 지적했듯이, 루터는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면서도 통일된 것으로 보았다.<sup>61)</sup> 루터는 「구약성서에 붙이는 루터의 서문」(1545)에서 구약의 율법은 선한 행동을 위한 도덕적 잣대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성을 깨닫고, 은혜를 갈구하게 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많은 모세의 율법을 내놓는 까닭은 앞서 말했듯이 누구든지

60) 『루터선집1』, 313.

61) 보른캄, 『루터와 구약성경』, 4장.

신한 일과 올바른 삶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뿐 아니라... 최악이 쉽사리 붙어나서 헤아릴 수도 없이 쌓이기 때문이다. 목적은 양심에 멍에를 씌워서 굳어 버린 무지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선을 이루는 일에 그 자신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 그 율법은 무지한 자들로 하여금 율법과 율법의 능력을 넘어서는 그 무엇, 즉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율법, 특히 앞서 말했듯이 그 본질상 죄가 아닌 사물들의 죄를 규정한 레위시대의 율법은 소멸된다.<sup>62)</sup>

즉, 루터는 구약은 분명 신약과 역할에 있어서 구별되지만, 구약은 신약으로 가는 불가피한 전제라고 본다. 즉, 인간은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죄인 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구하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루터는 구약의 예언서와 역사서 뿐만 아니라, 율법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힘차게 예언한다”<sup>63)</sup>고 주장한다.

한편 루터는 창세기 3장의 성서주해에서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수용한다. 예컨대, 루터는 타락의 이유를 설명하는 매우 논쟁적인 구절인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의 해석에 몰입한다. 루터는 이 구절의 ‘우리 중 하나 같이’라는 말을 복수의 위격으로 해석한다.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의 모양대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삼위일체 교리, “즉 한 분 하나님과 세 분 위격이 계시디는 교리에 대한 확고한 증거”<sup>64)</sup>로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

62) 『루터선집1』, 35-36.

63) 알트하우스, 『마르틴 루터의 신학』, 139.

64) 『루터선집1』, 128.

### 3.3. 성서강해를 통한 가톨릭과 다른 이단 및 교부신학 비판

루터 성서강해의 또 다른 특징은 끊임없이 성서를 빗대어 당시의 가톨릭 교회를 비판한다는 점이다. 루터는 창세기 3장 강해에서도 곳곳에서 당시의 이단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루터는 당시의 가톨릭 교리와 탁발승단(프란체스코 수도회와 도미니크 수도회)을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예컨대,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죄에 대한 변명과 자기변론을 시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죄의 창시자’로 몰아간다. 이처럼 아담이 하와를, 하와가 뱀에게, 결국은 하나님에게 죄의 원인을 전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서, 루터는 당대의 가톨릭 교회를 보게 된다. 가톨릭 교회는 진실한 죄의 고백을 하기보다, “수도원에서 우상숭배나 다름 없는 기도으로써 성자들의 보호를 받고자” 하고, “마리아와 성자들의 중재를” 구하기만 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sup>65)</sup> 또한 루터는 가톨릭 교리에서 ‘고해 성사’를 통하여 죄의 용서와 죄의 축출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 이미 이루어지는 죄의 용서를 의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가톨릭의 연단에 의한 공로, 금식, 기도, 성지순례 등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한다.<sup>66)</sup> 특히 루터 이전 성만찬에서 평신도는 떡 분병에만 참여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몸인 성찬의 성례와 형제단」(1519) 글에서 평신도들도 떡과 잔 모두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에 관한 해석」(1527)에서 루터는 가톨릭의 화체설과 츠빙글리의 상징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편재’(Ubiquity)에 근거한 실제적 임재, 즉 공재설(共在設)을 주장한다. 무엇보다도 루터는 「수도원 서원에 관한 판단」(1521)에서 탁발승단을 “악한 불량배들”(evil rogues)라고 비판하며, 구걸은 청빈이 아니라고 역설한다.<sup>67)</sup>

나아가, 창세기 3장 해석에서 루터는 사탄의 화신인 뱀의 역할을 주해하

65) 『루터선집1』, 86-87.

66) 『루터선집7』, 46.

67) 김주환,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이야기』, 186-194.

는 과정에서, 뱀을 당대의 이단들과 동일시한다. 예컨대, 루터는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sup>68)</sup>하는 재세례파를 비판한다. 1520년 초 재세례파가 등장하면서부터 세례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되기 시작하였다. 재세례파는 유아세례를 무의미하다고 보고, 성년이 된 뒤에 재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다. 루터는 「거룩하고 축복된 세례의 성례」(1519)에서 기본적으로 세례는 약식으로 물을 떠서 손으로 머리 위에 떨구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물 속 깊이 완전히 잠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sup>69)</sup> 루터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진노의 홍수 사건이라면, 세례는 은혜의 홍수 사건”<sup>70)</sup>이라고 비유한다. 재세례파와 종교개혁자들이 결별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정부와 권력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정부나 권력이 선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재세례파는 권력과 ‘오직 믿음으로 만’(sola fide)의 원칙은 양립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이유에서 루터는 아리우스(파)를 또 다른 뱀과 같은 사악한 존재로 규정하고 비판한다. 루터는 “아리우스는 당신들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요 14:28)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한다.”<sup>71)</sup>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루터는 “아리우스는 그가 왜곡된 몇 가지 인용구절을 근거로 로고스는 창조물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창조된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상을 탔었다고 생각한다.”<sup>72)</sup> 그리고 “아리우스는 인자(人子)의 신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하여 버리는 방법을 알 때, 자신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선은 오래가지 않는다.”<sup>73)</sup> 라고 비판한다.

한편, 루터는 창세기 3장 성서해석에서 어거스틴을 거명하며 그의 성서해석의 문제를 제기한다. 물론 루터는 사상적으로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계시

68) 『루터선집1』, 54.

69) 『루터선집7』, 33.

70) 『루터선집7』, 36.

71) 『루터선집1』, 60.

72) 『루터선집1』, 66.

73) 『루터선집1』, 67.

신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적 중세 스콜라주의의 선행의인화(善行義認化) 사상을 비판하고, 오직 신앙으로만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는 교리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가톨릭교회의 교리적 토대가 된 어거스틴의 '세례를 통한 죄의 씻음,' '연옥과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순교나 구제를 통한 잉여 공로로 인한 죄 사함'과 같은 사상 등을 강력하게 거부한다. 사실 어거스틴은 스승 암브로스(Ambrose, 339-397)로부터 이런 사상을 물려받았다. 암브로스는 성골, 유물, 마리아 숭배사상 등을 로마 교회 안에 들여놓은 첫 교부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3세기경 오리겐의 마리아 숭배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마리아 숭배사상에다 성물 숭배사상을 연결하였다. 루터의 신학과 어거스틴 신학이 달라지는 것은 자유의지에 관한 견해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스콜라 신학을 반박한 논제」(1517)<sup>74)</sup>에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의지의 노예 신세를 강조하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받음을 주장”<sup>75)</sup>한다. 루터의 이런 입장은 창세기 3장 강해에서도 드러난다. 루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성을 어떻게 흠 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의지를 어떻게 선하다 말할 수 있겠는가?”<sup>76)</sup>라고 반문한다. 이처럼 루터가 성서강해를 통하여 당대의 신학적 사조를 반박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신학적 논조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을 창세기 3장 강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나가는 말

본 논문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간을 그의 새로운 성서해석 방법에 있다

74) 『루터선집5』, 29-31.

75) 김홍기, 『김홍기 총장이 쉽게 쓴 세계 교회 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09), 120.

76) 『루터선집1』, 51.

고 본다. 이에 루터의 창세기 3장 주해를 통하여 그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루터의 창세기 3장의 성서주해를 다섯 가지 소주제로 나누어 제시하고, 이 주해에 나타난 루터의 성서강해의 특징을 세 개의 범주로 제시하였다.

구약성서 열왕기에는 네 번의 종교개혁이 언급되고 있다. 아사의 종교개혁(왕상 15:11-15; 대하 15:16-17), 여호사밧의 종교개혁(왕상 22:43; 대하 20:32), 요아스와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왕하 11:18; 왕하 12:2-3; 대하 23:17),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왕하 18:1-12; 대하 29:1-19; 31:1-21), 요시아의 종교개혁(왕하 23:4-20)이다. 이 종교개혁의 공통사항은 비알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신당을 폐쇄한 것이다. 사실 구약의 종교개혁은 신명기적 명령에 근거를 한 것이다. 신명기에 나타난 종교개혁적 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단, 주상, 아세라 목상, 조각한 우상을 깨뜨리라(7:5; 12:3; 16:21). 일월성신에게 절하지 말라(17:3). 산당과 다른 이방신전들을 파괴하라(12:2). 해와 달을 섬기지 말라(17:3). 남창과 여창을 제거하라(23:17). 몰렉 숭배를 금지하라(12:31; 18:10). 이방신과 여신 숭배를 금지하라(12:29-30). 죽은 자의 혼을 불러 오는 것을 금지하라(18:11). 유월절 제시는 한 곳에서 드려라(16:1-8). 결국 구약성서에 나타난 종교개혁의 핵심은 유일신 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는 것이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신명기적 개혁 원칙에 근거하여, 당시 가톨릭교회가 하나님 주권을 대신하고, 대체하는 현상에 대한 정화작업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루터는 가톨릭 교리와 당대의 이단들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성서를 증거본문 삼아 비판하고 개혁적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루터가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만이 유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를 ‘입의 집’(Mundhaus)라고 부를 만큼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개신교회는 무엇을 되새기고 기념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중심으로 회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현장의 엄중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주요어>**

루터, 창세기 3장, 성서강해, 종교개혁

**<Key words>**

Luther, Genesis 3, Bible exposition, Reformation

\* 접수일 2017년 9월 15일, 수정일 2017년 10월 27일,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29일

## 참고문헌

-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삶과 신학이야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설교신학 이해—그의 초기 설교들(1513-1522)을 중심으로,” 『대학과 선교』 제17집 (2009), 39-67.
- 김홍기, 『김홍기 총장이 쉽게 쓴 세계 교회 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09.
- 마틴 루터, 지원용 옮김, 『루터선집1』, 서울: 컨콜디아사, 1981.
- 마틴 루터, 지원용 옮김, 『루터선집5』, 서울: 컨콜디아사, 1984.
- 마틴 루터, 지원용 옮김, 『루터선집7』, 서울: 컨콜디아사, 1986.
- 이성립, “루터와 반유대주의: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 『신학과 세계』 83(2015), 70-99.
- 지원용 편, 『루터사상의 진수』, 서울: 컨콜디아사, 1986.
- 파울 알트하우스 지음, 구영철 옮김, 『마르틴 루터의 신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4.
- 하인리히 보른캄 지음, 엄현섭 옮김, 『루터와 구약성경』, 서울: 컨콜디아사, 2006.
- Song, Inseo, “Abraham as an Example of Christian Identity,” 『장신논단』 47(2015), 83-106.
- Song, Inseo, “Martin Luther’s Hermeneutics of the Old Testament,” 『Canon&Culture』 11 (2017), 5-34.
- Thompson, Mark D.,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Works of Martin Luther,” *A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Vol. 2: The Medieval through the Reformation Periods*, Alan J. Hauser and Duane F. Watson, eds., Grand Rapids, MI: Eerdmans, 2009, 299-318.
- Kolb, Robert., Dingel, Irene, Batka, Lubomír., eds. *The Oxford Handbook of Martin Luther’s Th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초록>

##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설교에 나타난 루터 성서해석의 특징 연구

이윤경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본 논문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근간을 그의 새로운 성서해석 방법에 있다고 보는데서 출발한다. 루터의 ‘오직 성서만으로’ 혹은 ‘성서는 성서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성서해석의 대원칙은 무엇보다도 문법적, 역사적, 문자적 해석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루터의 대원칙과 실제 주석 사이에는 많은 괴리가 있다. 특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기에, 루터의 해석은 여전히 역사비평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괴리감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루터 성서해석의 특징이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과 ‘십자가 신학’에 있기 때문이다. 루터의 주석은 문법적, 역사적, 문자적 원칙에 기반 하여 정확한 해석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많은 부분 알레고리적이고 교리적인 해석이 눈에 띄는 것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루터 성서해석의 특징을 루터의 성서주해 실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루터의 구약성서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구체적인 실례로서,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에 나타나는 신학 적 주제를 크게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몸’에 대한 긍정적 이해, 2. 뱀의 존재와 시험의 본질, 3. 열등한 존재, 여성, 4. ‘말씀’으로 기능하는 금지된 열매, 5. 타락의 결과.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루터의 창세기 3장 강해에는 본문에 천착한 주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 교리를 수용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세 개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문법적, 역사적, 문자적 해석 추구, 2. 그리스도 중심적 성서강해, 3. 성서강해를 통한 가톨릭과 다른 이단 및 교부신학 비판.

<Abstract>

## A Study on Luther's Exposition on Genesis 3

Prof. Yoon Kyung Le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begins with the view that Luther's Reformation is rooted in his fresh new interpretation of Scripture. Luther's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such as 'Sola Scriptura' or 'Sui ipsius interpres' can be seen primarily by means of a grammatical, historical, and literal interpretation. However, there are many gaps between Luther's principle and his actual practice of biblical interpretation. From a modern point of view, Luther's interpretation is still far from the approaches of historical criticism. The reason for this discrepancy is that, among other things, Luther's biblical interpretation is characterized by 'Christ-centered interpretation' and 'Theology of the Cross.' In Luther's commentary it is still easy to find many allegorical and doctrinal interpretations. In this paper, I first briefly examine Luther's position on the Old Testament, and then analyze Luther's characteristics of the Bible

interpretation by categorizing the theological themes that appear in his exposition on Genesis chapter 3 into five major themes. 1. A positive understanding of the 'body'; 2. The nature of the 'snake's test'; 3. Woman as the inferior being; 4. The forbidden fruit as the Word. Furthermore, Luther's commentary on Genesis 3 is not only the exegetical work on the text itself, but also supports the traditional doctrines and sometimes criticizes them. This paper present such characteristics into three features. 1. The pursuit of grammatical, historical, and literal interpretation; 2. The Christ-centered approach; 3. Criticism of Catholicism, other heretics, and patristic theology.

